

#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1000세대 조성 순항

### 푸소 시즌2 연계로 인구 유입·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강진원 군수, 사업지 현장 방문 “관계인구 확대” 독려

강진원 군수가 10일, 병영 빈집 활용 마을 호텔 조성 사업지와 도시재생 DIT(Do It Together)문화센터 조성 예정지를 방문했다.

신규 마을 조성 및 빈집 정비는 인구 고령화와 유출 등으로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사업이다.

강진군 민선 8기 신 강진 건설의 핵심 목표인 ‘인구 5만 명 시대’ 달성을 위해 신규마을 조성 1000세대, 빈집 리모델링 1000세대 등 총 2000세대의 전원주택을 조성해 도시민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병영 한옥 호텔 조성 사업은 1단계 빈집 리모델링 1000세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병영면 일원에 약 40개 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해결하고 도시민에게 세컨 하우스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사업은 강진으로의 관계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면서 “현재까지 병영면 내에서 11채의 건물주와 임대

대계약을 마쳤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어지고 날씨가 풀리면서 계약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DIT문화센터는 병영면 성남리 89번지의 양곡 창고를 꾸며, 남녀노소 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창고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지속 가능한 공간 활용’을 위한 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날 강 군수가 방문한 리모델링 예정 주택에는 1채당 평균 6천~7천만 원이 소요되며, 이 예산은 전액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으로 충당된다.

민선 8기 강진군은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전원주택 2천 세대 조성과 함께 제2 푸소를 연계해 일자리까지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푸소 시즌 1의 체류형 농촌 관광을 넘어서, 은퇴자·초보농부 등 다양한 계층이 강진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푸소 시즌2를 통해 ‘농촌으로의 장기 유턴’을 현실화하겠다는 각오다.

강진군은 인구 절벽을 타개할 신규마을로



임전지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전지구는 강진읍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배산임수의 완벽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주택 수요자들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 곳에 150세대 규모의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며, 마을 조성과 함께 진입도로 및 마을안길,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이 같은 전략을 현실화하고 뒷받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MZ세대 민간 전문가인 유튜브 채널 ‘오지는 오진다’ 김현우 대표 등을 초빙해 빈집 리모델링 등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최근 KBS2 ‘세컨하우스’에 강진군 마량면의 한 농가가 소개되면서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시골에서 지내는 라이프 스타일)’의 최적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 매일시장 친환경 녹색 시장으로 활성화 모색” 실과소·읍면 열린소통회의

명현관 해남군수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재개장한 해남매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노력해 주시어 감사드린다”며 “친환경 소포장 판매 등 소비자 서비스를 높여 젊은 층까지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현대화된 시장 건물을 신축하고 재개장한 해남매일시장은 개장 기념으로 다채로운 소비자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2월 한달 간은 해남 매일시장 가는 달’을 주제로 즉석 경매행사, 경품권 추첨, 먹거리 축제 등을 개최한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시장에서 나온 각종 물품을 1,000원부터 시작하는 경매행사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경매행사에는 매차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매 수익금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과 튀르키예에 지원 구호 성금으로 기부해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매일시장을 실내의 꽃과 식물을 활용한 디자인 특화 시장으로 단장하는 한편 친환경 포장재 지원 등 ESG 녹색시장으로 브랜드화 해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소중한 경매 수익금을 지진 성금 등으로 기부해주시는 상인회와 뜻있는 마음으로 경매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군 자체적으로도 공직자와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 성금 모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하고, 오는 16일 개최하는 오일시장 주차타워의 이용편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 지시도 이뤄졌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단’ 확대

장흥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단 인원을 작년 대비 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단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불법주차 신고가 빈번한 아파트 단지 및 의료시설,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반신고의 주요 유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선 침범,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주차표지 위반조 및 표지 부정사용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구형표지(사각형) 부착 차량,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최대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반조 및 표지 불법 대여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장흥=김도영기자

### 완도군, 15억 원 규모 취약계층 자활 사업 추진

완도군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 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의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군은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완도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사업단 운영, 상담, 자활 기업 창업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완도지역자활센터에서는 ▲어구 정비 ▲깔끔미 청소 ▲청해영농 ▲반짝반짝 세탁 ▲시설 관리 ▲생선 다듬이 ▲커피&토스트 ▲빵&누룽지 ▲어망 정비 등 9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3개월간 사전 교육을 거쳐 개별 역량에 맞는 사업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자활 기업으로 구구팔팔헬스, 금비산업, 희망집수리사업, 새하얀 청소용역, 삼례산업 등 5개의 자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립 의지가 강한 참여자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 형성 사업은 소득계층 및 자부담 비중에 따라 근로 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등 4개 사업(68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물가 안정 위해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

진도군이 물가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 요금을 동결한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진도군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 유지한다.

또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20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특히 군은 ▲아리랑 상품권 모바일 10% 상

시 할인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 ▲지난해 대비 10% 이상 물 절약 세대에 절감량 100% 감면 ▲물가안정 캠페인 동참 릴레이 이벤트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합리적인 소비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